FX Market Daily

2026-11-06

전일동향

美 민주당 압승 소화하며...1,355.50원에 마감

5일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 1,341.50(15:30 기준)에서 3.00원 하락한 1,338.50(07:00 기준)에 개장했다.
환율은 서울장에서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소화하며 상하방 수급 변수에 강보합권에 머물다, 뉴욕장에서 기술주 급락으로 인한 위험회피 움직임에 상승하며 1,355.50원에 종가(07:00 기준)를 기록했다. 일간 장중 변동 폭은 19.10원이었다.
한편, 이날 외환시장 마감 시점의 엔-원 재정환율은 859.00이다.

전일환율변동

구분	시가	고가	저가	종가	평균환율 (매매기준율)
달러	1338.50	1357.00	1337.90	1355.50	1342.00
엔화	845.27	860.05	843.31	859.00	-
유로화	1503.97	1523.36	1500.32	1519.99	-

* 시가/고가/저가/종가: 달러는 익일 06:00(美 서머타임 해제 시 익일 07:00) 기준, 엔화 및 유로화는 15:30 기준

F/X(달러-원) 스왑포인트

	1M	3M	6M	12M
보장환율(수출)	-0.78	-2.89	-6.56	-14.94
결제환율(수입)	-0.36	-1.67	-4.49	-11.49

*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,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

*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,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(https://www.ksure.or.kr/rh-fx/index.do) 확인

금일 전망

美 기술주 급락에...1,350원대 중심 등락 전망

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(-0.70원)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(1,342.10, 15:30 기준) 대비 16.70원 상승한 1,358.1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.

금일 환율은 글로벌 위험회피 분위기에 상승 전망한다. 미국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의 상하원 장악에 따라 미국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 우려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AI 관련주가 일제히 급락하는 등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극대화됐다. 간밤 뉴욕증시에서 나스닥은 5.52%,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12.25% 급락했고,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위험회피성 매수에 4.83% 부근으로 하락했다. 이에 금일 국내 증시에서도 5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자금 이탈이 지속되면서 원화 약세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. 여기에 이란의 유조선 공격 등 중동 긴장 재고조로 WTI 국제유가가 전일대비 3.50% 상승하며 반등한 점 역시 위험회피심리를 추가 자극하는 요인으로 판단되어, 금일 환율 상승 압력 확대될 전망이다.
다만, 수출업체 고점 매도물량 유입과 외환당국의 경계감 강화 가능성은 상승 폭을 제한할 전망이다.

금일 달러/원 예상 범위	1349.00 ~ 1363.00 원
체크포인트	■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: -33740.53 억원
	■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(NDF) :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6.70원↑
	■ 美 다우지수 : 51523.06, -1833.06p(-3.44%)
	■ 전일 현물환 거래량(종합) : 170.93 억달러
	■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: -2522 억원

※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